新羅 景文王·憲康王代의「能官人」登用政策과 國學

田 美 姬

Ⅰ. 머리말
Ⅱ. 景文王·憲康王代의「能官人」登用政策
Ⅲ. 景文王·憲康王代 國學의 改編
Ⅳ. 景文王·憲康王代 頭品身分層의 政治的 成長과 王權의 强化
Ⅴ. 맺음말

Ⅰ. 머리말

新羅 下代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景文王·憲康王代의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元聖王系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왕위 쟁탈전이 景文王의 즉위와 더불어 종식되었고,[1] 아울러 이 시기에 왕권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추구되었기 때문이다.[2]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新羅 景文王·憲康王代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 다만 新羅 下代의 정치·사회적인 동요의 양상이나 왕위 계승의 문제를 고찰하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3]

1) 景文王 이후로는 대부분의 왕들이 그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왕위 쟁탈전의 양상도 별달리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景文王의 즉위를 계기로 하여 元聖王系 내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규가 종식되어 갔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2) 李基東,「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歷史學報』77, 1978;『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참조. 氏는 近侍機構 및 文翰機構의 확장이 신라 말, 특히 景文王·憲康王代의 側近政治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한 표현으로 보았다 (앞의 책, p.264). 한편, 丁元卿,「新羅景文王代의 願塔建立」,『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5, 1982 도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新羅 景文王·憲康王代에 시행된 새로운 인사 정책인 「能官人」 등용 정책과 그에 따른 國學의 개편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그 당시에 새로운 관료들인 「能官人」을 등용하게 된 정치적 배경과 그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이 교육받았다고 보여지는 國學의 개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景文王·憲康王代의 정치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Ⅱ. 景文王·憲康王代의 「能官人」 登用政策

景文王(861~874)代에 國師를 지냈던 朗慧和尙은 景文王이 죽고 그의 아들인 憲康王(875~885)이 즉위하자,

A. 旣有三言 庸可留獻曰 能官人 (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p.78)

이라 하여, 「能官人」을 정치의 기본 방침으로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能官人」이란 '능력있는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는 능력있는 관리를 등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4] 즉, 朗慧는 「能官人」 등용 정책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

3) 이와 관련된 논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崔柄憲,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한국사』 3 (國史編纂委員會, 1978)
吳 星, 「新羅 元聖王系의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1979)
尹炳喜, 「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1982
李基東, 「新羅 下代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正音文化社, 1985)

4) 「能官人」이란 『書經』에 나오는 말로서, 秋萬鎬는 이를, '맡길 만한 인재에게 벼슬 자리를 주라'는, 「任賢人」의 의미로 해석하였다(秋萬鎬, 「羅末 禪師들과 社會勢力과의 關係」, 『史叢』 30, 1986 p.6 참조).

그러면 朗慧가 주장한「能官人」등용 정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祿眞이 忠恭에게 올렸던 人事政策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 祿眞曰 彼梓人之爲室也 材大者爲梁柱 小者爲椽榱 優者·植者 各安所施 然後大廈成焉 古者賢宰相之爲政也 又何異焉 才巨者置之高位 小者授之薄任 內則六官·百執事 外則方伯·連率·郡守·縣令 朝無闕位 位無非人 上下定矣 賢不肖分矣 然後王政成焉 (三國史記 45 祿眞傳)

위의 기록에 의하면, 祿眞은 才가 큰 자는 高位에 놓고 작은 자는 薄任을 주어 上下를 정하고 賢·不肖를 구분한 연후에야 王政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才'는 관리가 갖추어야 할 유학적인 능력과 실무적인 행정 능력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헤아려진다. 말하자면 그것은 신분과는 거리가 먼 요소들인 것이다. 사료 A의「能官人」에서 말하는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렇다면「能官人」등용 정책은 신분에 의하여 모든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던 新羅 骨品體制 아래에서 신분보다는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新羅 骨品制 社會에서 진골 계층은 가장 우대받는 신분층으로서, 신분적인 특권에 의하여 다른 신분층보다는 비교적 쉽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6두품을 비롯한 두품 신분층은 신분적인 특권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능력에 의하여 정치적인 진출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5]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能官人」등용 정책은 진골 귀족보다는 두품 신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는「能官人」의 등용을 주장한 朗慧가 6두품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5) 李基白,「新羅六頭品研究」,『省谷論叢』2, 1971;『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_____,「新羅 骨品體制下의 儒教的 政治理念」,『新羅思想史研究』(一潮閣, 1986)

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믿는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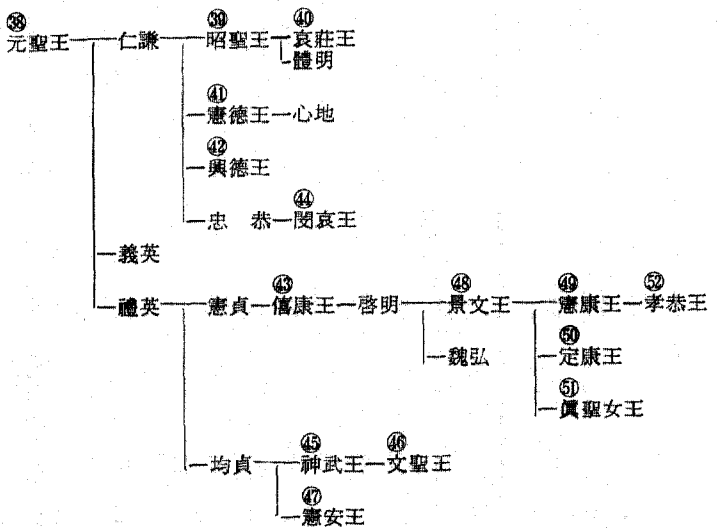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이와 같은 朗慧의 건의는 받아들여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能官人」의 등용에 대한 건의가 景文王·憲康王代에 대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그런데 이 점은 景文王系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景文王·憲康王은 元聖王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세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보여지는 憲貞系의 인물들이었다.[7] 더우기 景文王은 정통 왕위 계승자가 아닌 前王(憲安王)의 사위로서 왕위에 올랐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진골 귀족들과 적지 않은 대립·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추측된다.[8] 따라서 즉위한 후 그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의 확충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왕권을 제약하려는 진골 귀족들의 세

6) (朗慧) 父範清 族降眞骨一等 曰得難 (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p.74)

7) 尹炳喜, 앞의 논문, p.66 참조.
참고로 元聖王系의 世系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元聖王의 世系〉



8) 崔柄憲, 앞의 논문, pp.491~492 참조.

력을 억제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료 체제를 편성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리라는 점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能官人」 등용 정책은 바로 이러한 국왕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보아 좋을 줄 믿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여기서 우리는 景文王·憲康王代에 왕권 강화의 필요에 따라, 주로 두품 출신으로서 유학적인 능력이나 실무적인 행정 능력 등이 뛰어난 인물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能官人」 등용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설치 또는 확장되었다고 보여지는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에 唐에 유학한 두품 신분의 인물들이 다수 임명된 것은 이러한 경향의 일면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9]

Ⅲ. 景文王·憲康王代 國學의 改編

우리는 앞장에서 景文王·憲康王이 「能官人」 등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國學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 주목할 만하다.

C. ① (景文王) 三年春二月 王幸國學 令博士已下 講論經義 賜物有差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景文王 3년)

② (憲康王) 五年春二月 幸國學 命博士已下講論 (同上 憲康王 5년)

C-①은 景文王이 同王 3년(863) 2월에 國學에 巡幸하여 博士 이하로 하여금 經義를 강론하게 하고 각기 물품을 하사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기록이다. 그리고 사료 C-②에 따르면, 憲康王도 역시 즉위 5년(879)에 國學에 행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新羅에서 이러한 國王의 國學 순행은 常例的인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0] 그러므로 景文王과 憲

9)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앞의 책, pp. 247~264 참조.

10) 『三國史記』의 기록 가운데 國王의 국학 행차에 대한 것은 네 번에 불과하다. 즉, 본문 C-①·② 기록에 보이는 경우와, 惠恭王 원년 및 12년의 국학 행

康王이 國學에 행차하였던 데에는 그들의 그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을 듯싶다.[11] 이전과는 달리 博士 뿐만 아니라 그 이하자에 이르기까지 강론하게 한 것이라든지, 강론을 듣고난 후 차등있게 시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하다.[12]

景文王과 憲康王이 이와 같이 國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新羅 中代 國學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新羅 中代에 있어서 國學은 專制王權의 옹호 기반으로서 기본적인 구실을 담당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3] 다시 말하면, 國學은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관리의 양성을 통하여 왕권의 지지 기반을 확충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能官人」 등용 정책 등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景文王·憲康王이 國學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國學을 통하여 왕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새로운 관료층 즉, 「能官人」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國王의 國學에 대한 관심과 병행하여 新羅의 國學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듯하다. 다음 기록이 그러한 가능성을 시

차가 그것이다(註 12의 사료 참조). 기록의 누락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학 순행의 예가 이와 같이 드물고, 더우기 그 시기도 제각기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新羅에서 국왕의 국학 순행은 상례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11) 학자에 따라서는 崔致遠이 撰한 大崇福寺碑文에 景文王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始馳名於玉鹿'이라고 있는 것을 통하여, 景文王이 國學에서 敎授官을 지냈다고 보기도 하였다(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의 책, pp. 171~173). 하지만 진골 출신이면서 花郎으로 활약했던 그가 국학에서 敎授官을 역임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즉위시 그의 나이가 弱冠에 불과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더욱 잘 알 수 있다.

12) 이는 惠恭王代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국학 행차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점이다.
(惠恭王) 元年 大赦 幸國學 命博士講尙書義 (三國史記 9 新羅本紀 9 惠恭王 원년)
(惠恭王十二年)二月 幸國學聽講 (同上 12년)

13)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의 儒敎的 政治理念」, 앞의 책, pp. 223~231 참조.

사해 준다.

D. 景文大王主 文懿皇后主 大娘主 願燈二炷 唐咸通九年戊子中春 夕繼月光 前國子監卿沙干金中庸 送上油粮業租三百碩 (新羅開仙寺石燈, 韓國金石遺文, p. 227)

D는 開仙寺石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 銘文에 따르면, 開仙寺石燈은 景文王과 그의 妃인 文懿王后 및 大娘(公主?) 등이 발원하여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唐 咸通 9년 즉, 景文王 9년(868)에 前國子監卿인 沙干 金中庸이 또한 石燈 건립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國子監이란 명칭이 쓰였음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왜냐하면 『三國史記』 職官志에 따르면, 新羅의 國學은 景德王代에 太學監이라고 改名되었다가, 惠恭王代에 다시 國學으로 명칭이 복고되는 변화를 겪었을 뿐 國子監으로 호칭되었던 예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銘文 중에 國子監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景文王代에는 國學을 國子監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9세기 중엽에 新羅에서 제 2차 官號改革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15] 즉, 우리는 현존 金石文 자료를 통하여 9세기 후반에 있어서 官府·官職名의 改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9세기 중엽에 官號改革이 단행되었던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景德王이 왕권의 專制化를 위하여 官號를 漢式으로 改名했던 것과 마찬가지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앞서 開仙寺石燈에 國子監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官號改革의 추세에 따라 國學이 國子監으로 改名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이 國學을 國子監으로 고쳤던 것이 단순한 명칭 상의 변

14)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 景德王改爲大學監 惠恭王復故 (三國史記 38 職官上 國學)

15)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앞의 책, pp. 233~246참조.

화인지, 아니면 國學 내의 일정한 구조적인 개편이 수반되었는지 하는 문제는 의연히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다음 기록들에서 어느 정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 ① 令准去文德元年放歸 限滿學生太學博士金紹游等例 勒金茂先等 并首領隨賀正使級飡金讓船次還蕃 (東文選 47 狀 奏請宿衛學生還蕃狀)

② 國學 (中略) 或差算學博士 若助敎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敎授之 (三國史記 38 職官 上 國學)

E-①은 崔致遠이 쓴 「奏請宿衛學生還蕃狀」의 일부인데, 金茂先을 비롯한 新羅의 宿衛學生 네 명을 文德 원년(888, 眞聖女王 2년)에 돌려 보낸 滿期學生 太學博士 金紹游 등의 例에 준하여 돌려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글이다. 여기에서 본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金紹游가 가지고 있던 太學博士란 직책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金紹游의 入唐 연도라고 추측되는 憲康王 4년(878) 당시에[16] 그가 新羅에서 역임하고 있었던 관직이라고 보여지며,[17] 따라서 적어도 憲康王代 新羅에는 太學博士라는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新羅에서 太學博士가 있었을 법한 관부는 國學 이외에 달리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로 미

16) 新羅에서 入唐宿衛學生의 수업 기한은 10년이었다. 金紹游의 환국 연도가 文德 원년(888)이므로 이 점을 근거로 계산하면, 그의 입당 연도는 憲康王 4년(878)임을 알 수 있다.

17) 金紹游가 太學博士에 있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文德 원년(888)에 돌아올 당시 唐에서 太學博士를 지내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崔致遠이 이 글을 쓴 때인 眞聖女王 11년(897)에 金紹游가 신라에서 太學博士로 활동하고 있었을 경우이다. 그리고 세째는, 金紹游가 唐에 宿衛學生으로 갔던 때인 憲康王 4년(878)에 그 직위에 있었을 경우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唐에 學生으로 가 있던 金紹游가 唐의 최고 교육 기관인 國子監의 太學博士로 있었으리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眞聖女王 2년 당시의 金紹游에 대한 설명에 10년 가량 후의 직책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곤란하다. 唐의 입장에서 볼 때는 金紹游가 현재 신라에서 가지고 있는 관직보다는, 入唐했던 시점의 그것을 통해서 그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E-①의 太學博士는 金紹游가 入唐한 시기인 憲康王 4년(878)에 그가 신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루어 볼 때, 憲康王代 이미 國學에는 太學博士가 임명되어 가르치던 太學이라는 학과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료 E-②에 의하면, 國學에 算學博士나 算學助敎들을 보내어 算學 과목을 교수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國學에서 이러한 算學 교육이, 다른 儒學 과목과의 兼學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전문학과의 하나로 구분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算學 교육을 담당했음직 한 기관을 별도로 찾아 볼 수 없고,[18] 더우기 E-②에 보이는 교수 과목이 매우 전문적이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보면,[19] 점차 전문 학과로 되어 갔을 것으로 헤아려진다.[20]

이상의 추측이 허락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景文王·憲康王代를 전후하여 新羅의 國學에는 이미 太學이나 算學 등의 학과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新羅 中代의 國學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오히려 그것은 國子學·太學·四門學·律學·書學·算學 등의 6學으로 구분되어 있던 唐의 國子監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21] 이렇게 볼 때, 新羅의 國學은 國子監으로 그 명칭이 변화됨과 아울러, 그 구조도 역시 中國의 國子監을 본뜬 형태로 개편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22] 앞서 언급한 제 2 차 官號改革에 의하여 改名된 기구들의 대부분이

18) 『三國史記』 職官志를 통하여 기술 교육을 담당했을 법한 주요한 기관으로, 醫學·律令典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算學을 교육했을 듯한 관직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19) 國學에서 敎授한 것으로 보이는, 「綴經」·「三開」·「九章」·「六章」 등의 算學 과목은, 國子監 내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했던 고려시대의 算學 과목과 거의 동일하다(高麗史 74 選擧志 참고).

20)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문화된 算學을 공부했던 학생은 진골이나 6두품보다는 주로 5두품 신분층이 아니었을까 싶다. 5두품은 진골·6두품 신분층보다 유학적인 능력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진출하기가 좀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히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관리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21) 舊唐書 44 職官志 참고.

22) 여기에서 新羅의 國學이 中國의 國子監과 똑같은 형태로 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개편된 新羅의 國學이 高麗 初의 교육 체제로 연결되며, 나아가 그것이 高麗 成宗代 國子監의 성립을 가져 오게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中國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다.[23]

이와 같은 國學의 改編은 景文王·憲康王代의 「能官人」 등용 정책 및, 그로 말미암은 國王의 國學에 대한 관심과 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能官人」을 등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왕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새로운 관료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그들에게 國學의 개편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유학적인 능력 및 실무적인 행정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려는 데 있어서 이전까지의 미분화된 상태의 國學은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景文王·憲康王代에 「能官人」 등용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新羅의 國學은 唐의 國子監과 유사한 형태를 띤 國子監으로 개편되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Ⅳ. 景文王·憲康王代 頭品身分層의 政治的 成長과 王權의 强化

우리는 지금까지 新羅 景文王·憲康王代에 「能官人」 등용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와 병행하여 國學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이제 본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두품 신분층의 정치적 성장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能官人」 등용 정책과 그에 따른 國學의 개편은 진골 귀족보다는 6두품을 비롯한 두품 신분층에게서 더욱 환영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진골 귀족들에 비하여 신분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던 그들에게 신분보다는 능력에 의하여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졌음직 하다. 뿐만 아니라, 新羅에서 國學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6두품이나 5두품 출신이었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24] 國王의 國學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國學의 개편

23)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앞의 책, pp. 233~246 참조.
24)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의 儒敎的 政治理念」, 앞의 책, p. 229 참조. 아울러 필자는 6두품 뿐만 아니라 5두품 신분층도 國學에 다수 입학하였으리라는

이 두품 신분층의 정치적 진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國王의 입장에서 두품 신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등용하고자 하였던 것은 다음 기록의 검토를 통하여도 짐작해 볼 수 있다.

F. 乾符帝錫命之歲 令國內舌杪有可道者 貢興利除害策 別用蠻牋書言 荷天寵有所自因 (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pp. 78~79)

F는 唐의 僖宗 乾符帝가 憲康王의 즉위를 승인하던 해 즉, 憲康王 4년(878)의 일에 대한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이 해에 憲康王은 나라 안의 進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興利除害'의 방책을 바치도록 令을 내렸다고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나라 안의 진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國內舌杪有可道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는 구체적으로 신분이나 관직이 높은 진골 출신의 귀족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두품 신분층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25] 나아가 그것은 두품 신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을 관직에 등용하고자 하는 憲康王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두품 신분층의 정치적 성장은 왕권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景文王과 憲康王은 왕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새로운 관료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能官人」 등용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能官人」 등용 정책에 의하여 등용된 두품 출신의 관리 및 국학 출신의 두품 신분자들이 왕권의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그 일면이나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을 지적한 바 있다(拙稿, 『元曉의 身分과 그의 活動』, 西江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7, pp. 48~50).

25) 6두품인 祿眞이 인사 정책에 대한 건의를 직접 조정에 올리지 못하고 忠恭에게 했으며, 忠恭을 통하여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준다고 생각된다.

G. (景文王)九年秋七月 遣王子蘇判金胤等 入唐謝恩兼進奉 (中略) 又遣學生李同等三人 隨進奉使金胤 入唐習業 仍賜買書銀三百兩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景文王 9년)

위 기록은, 景文王 9년에 王子인 蘇判 金胤 등을 唐에 進奉使로 보내면서 두품 신분이었음이 분명한 學生 李同 등 세 사람을 아울러 보내어 학업을 닦게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學生'이란 新羅 國學의 학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아려진다.[26]

그런데 景文王과 憲康王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왕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였다고 보여진다.[27] 이는 景文王 이전에 있었던 均貞系의 왕들이 入唐使를 파견한 예가 거의 없는 데 반하여, 景文王이나 憲康王은 빈번하게 入唐使를 파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짐작이 가능하다.[28] 위 기록에 보이는 進奉使의 파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우기 景文王 9년은 진골 귀족들에 의한 두 차례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직후로서,[29] 王子를 직접 進奉使로 보냈다든지 보기 드문 후한 貢物을

26) 여기서의 '學生'은, 같은 기록의 '王子蘇判金胤'에 보이는 '王子蘇判'과 마찬가지로 쓰여, 신라에서의 李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그것은.

(昭聖王)元年春三月 以菁州居老縣爲學生祿邑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昭聖王 원년)

에 보이는 '學生'과 같은 용례로서, 新羅 國學의 學生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7) 이와 같은 예는 惠恭王의 경우에도 엿볼 수 있다(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硏究』, pp. 234~235 참조).

28)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의하면, 新羅 興德王 11년(836)에 王子 金義琮을 보내 사은한 이후, 景文王 2년(862)에 조공할 때까지 입당 조공한 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景文王代에는 同 2년·9년·10년의 세 차례, 그리고 憲康王代에는 同 2년·11년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憲康王 4년에는 사신을 唐에 보내려 하던 중 黃巢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둔 일도 있었다.

29) 景文王 6년에 있었던 伊湌 允興의 반란과 8년에 있었던 伊湌 金銳·金鉉 등의 반란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반란의 주모자가 진골 귀족이었을 것임은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의 책, p. 173에 잘 밝혀져 있다.

바쳤다든지 하는 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30] 이 때의 사신 파견은 보다 큰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가는 入唐 사절단에 國學生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의 入唐 유학생들이 국내 정치 세력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31] 나아가 그들은 羅唐間의 국제 교섭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보면,[32] 이 때 보내진 유학생들이 親王的 성격의 인물들이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므로 위 기록에 보이는 두품 신분인 李同으로 대표될 수 있는 新羅의 國學生은 왕권의 지지자였다고 해서 좋을 성싶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景文王·憲康王代의「能官人」등용 정책과 그에 따른 國學의 개편이 두품 신분층의 정치적 성장을 가져 왔고, 그들은 또한 國王의 지지 세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결국 景文王·憲康王은 이를 통하여 왕실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景文王이 반란자에 대하여 철저한 처벌을 가하고[33], 아울러 여러 차례 궁궐 중수 작업을 단행하기도 하였던

30)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景文王 9년 條 참조.

31) 이는,

(文武王十五年)秋九月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 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鄕導 來攻泉城 (三國史記 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秋 9월)

이라 하여, 宿衛學生 金風訓의 父인 金眞珠가 伏誅되자 唐兵이 그것을 구실로 하여 新羅에 쳐들어 왔음을 통하여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2) 李基東,「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앞의 책, pp. 261~262 참조.

33) 新羅下代에 있어서 반란자에 대한 처벌은 中代의 그것과는 판이하였다. 즉, 中代에는 族類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자를 샅샅이 잡아서 처벌하였던 것에 반하여 下代로 오면서는 자손이나 관련자에까지는 처벌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왕권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느 한 파에 대한 철저한 소탕은 또한 자기 파의 힘을 소모시키는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盧泰敦,「羅代의 門客」,『韓國史研究』21·22 합집, 1978, p. 10 참조). 그런데 景文王은 반란자에 대하여 철저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景文王 6년에 일어난 允興의 반란시에 그 일족을 멸하였다든지, 14년에 있었던 伊湌 近宗의 모반에 대하여 禁軍을 내어 追捕하고 車裂刑에 처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景文王 6년 및 14년 條 참조). 이러한 일들은 왕권이 강화된 결과 가

것 등은 바로 그러한 기반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34] 무엇보다도 진골 귀족들간의 왕위 계승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당시, 景文王系가 5代의 王位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景文王·憲康王代에 이루어진 왕권 강화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좋을 줄 믿는다.[35]

V. 맺음말

지금까지 新羅 景文王·憲康王代의 「能官人」 등용 정책과 國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고에서 논의되어 온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景文王과 憲康王은 왕권 강화의 필요에 따라 「能官人」 등용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能官人」 등용 정책이란, 유학적인 능력이나 실무적인 행정 능력 등이 뛰어난, 주로 두품 신분의 인물들을 관직에 등용하려는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景文王은 同王 8년에 朝元殿을, 그리고 11년에 月上樓를 重修하였으며, 14년에는 正堂을 重修하였다. 또한 11년에서 13년에 이르기까지 皇龍寺塔을 改造하는 작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景文王 條 참조).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왕권 강화의 산물이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35) 하지만 景文王·憲康王代의 「能官人」 등용 정책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듯하다. 이 점은 憲康王代에 智證大師가,

顧英君 所不須 矧形毁者乎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p. 94)

라 하여, '뛰어난 인물들을 우대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顧英君所不須)'는 말로 당시 인재 등용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실력있는 유학자에 대한 우대와 國學의 개편 등을 통하여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지만, 실제 그들을 중용하는 데에는 진골 세력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고 추측되는 것이다. 결국 「能官人」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한계는 景文王·憲康王의 왕권 강화에 있어서의 한계와도 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景文王·憲康王代에 일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던 新羅가 眞聖女王代를 거치면서 급속한 몰락의 길로 접어 들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能官人」등용 정책과 그에 따른 國王의 國學에 대한 관심은 新羅 國學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新羅의 國學은 唐의 國子監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景文王·憲康王代의「能官人」등용 정책과 國學의 개편은 두품 신분층의 정치적 성장을 가져 왔다. 결국 景文王·憲康王은 그들의 지지를 토대로 왕권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